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09.01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K-pop R&R. 케데헌에서 케이팝드까지. K-POP 키워드 성장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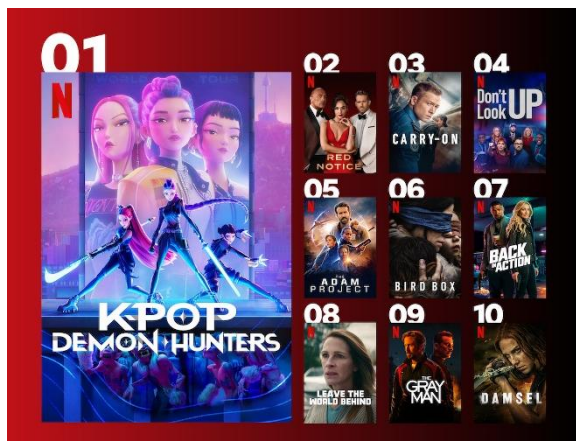
■ 끝나지 않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(KPop Demon Hunters, 케데헌) 신드롬

- 넷플릭스는 8/27 케데헌이 누적 시청 수 2억 3,600만 뷰로 역대 최고 인기 영어 영화에 등극했다고 발표
- 케데헌의 OST의 인기도 지속. 8/30주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'Golden'이 1위를 탈환, 총 4곡이 Top 10 진입
-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주 이상 정상을 지킨 K팝 노래는 BTS의 'Butter'와 'Dynamite'에 이어 세 번째
- 'Golden'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1위를 차지. 트와이스가 부른 OST 'Takedown'도 순위 진입
-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수는 8/30기준 HUNTR/X 4,735만명, Saja Boys 3,212만명, TWICE 2,686만명 기록
- 케데헌 상어롱 상영회는 8/23-24 주말 이틀간 특별 상영만으로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
- 케데헌의 글로벌 인기 속 소니와 넷플릭스는 후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

■ 애플TV+의 <KPOPPED> 8/29 공개. 글로벌 존재감을 높여가는 중인 K-POP 키워드

- 애플TV+의 오리지널 예능 <KPOPPED>는 K-POP 아이돌과 해외 가수들이 협력해 재해석한 곡으로 경연
- CJ ENM과 미국 유레카 프로덕션 공동 제작. 애플TV+ 글로벌 TV쇼 부문 8/30 5위→8/31 4위 기록
- K-POP 아이돌은 ATEEZ, JO1, ITZY, 해외 아티스트는 TLC, Boyz II Men, Ke\$ha, Spice Girls 등 출연
- 케데헌과 케이팝드까지 K-POP 키워드가 들어간 글로벌 콘텐츠 증가로 K-POP 관심 및 시너지 확대 기대

그림1 넷플릭스 All Time 글로벌 Top 10 영화 1위의 <케데헌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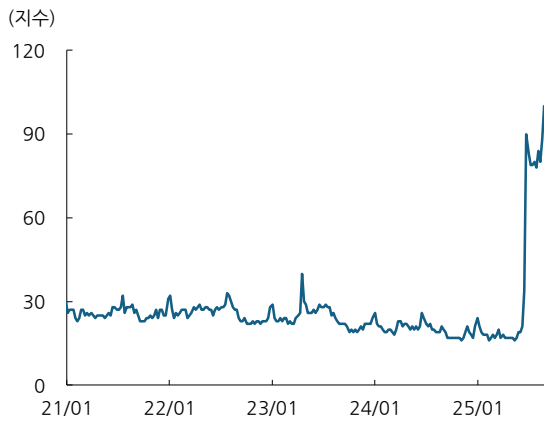
자료: Netflix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애플TV+에서 방영 중인 <KPOPPED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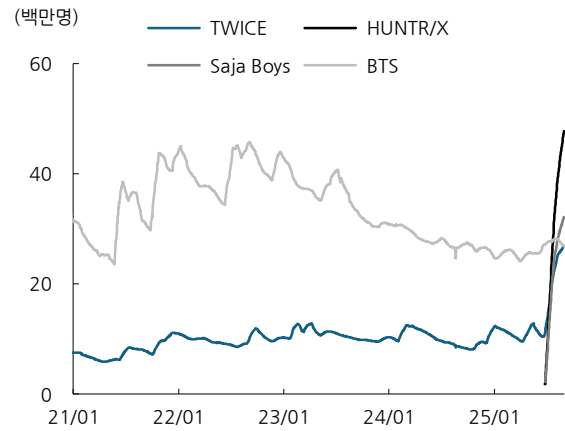
자료: Apple TV+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구글 검색어 트렌드 <Kpop>



자료: Googl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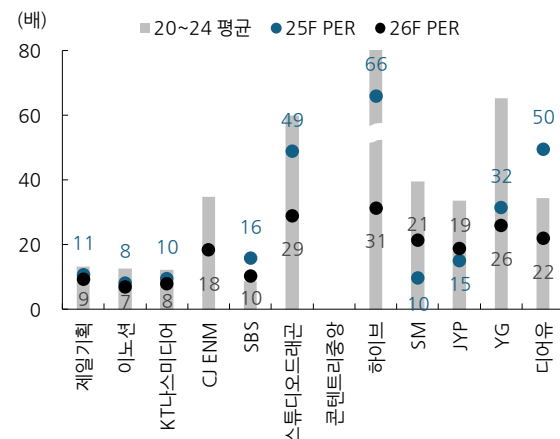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케데헌과 협력 제품을 출시한 농심



자료: 농심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